

# 전통·현대의 경계 허물다

‘소리꽃피다’, 22일 전주 문화공간이름서

‘소리꽃피다’ 공연이 22일 오후 7시 30분에 ‘사단법인더문화와 문화공간이름’의 공동주최로 전주시 문화공간이름에서 진행된다.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리꽃피다’는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소리꽃피다’는 기존 음악적 틀을 넘어서는 창조적인 접근을 추구해 악기 간의 새로운 결합, 독창적인 해석, 그리고 혁신적인 연주 방식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적 시도를 선보임으로써, 각기 다른 악기와 음악적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마치 아름다운 꽃대밭을 직접 뛰어내듯이 관객들에게 다채롭고 풍부한 음악적 선물을 제공한다는 컨셉트를 강조하고 있다.

악기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변화하는 음악적 질감을 통해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각 악기의 독특한 음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과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리꽃피다’에 출연하는 연주자로는 피아노 이윤정, 바이올린 강지수, 첼로 김성민, 더블베이스 정효준, 기타 이상욱, 해금 심재

린, 베이스 이대혁, 소리 이정인이 함께 출연해 소리꽃을 활짝 피워줄 계획이다.

이날 연주에는 Vincenzo Bellini의 Vaga Luna, che inargentelli 시작으로 Vittorio Monti의 Csardas, 이상욱 편곡에 너영나영, 오지홍의 쑥대머리와 한태수의 아름다운 나라까지 이어지며 점차 풍성해지는 특별한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가을 민들레와 쑥대머리 구성에는 첼로, 해금, 피아노와 소리, 해금, 기타, 더블베이스 등이 나오는데 동서양 악기의 만남이 독특하면서도 신선한 시너지를 만들어내어 특별한 음색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더문화와 이윤정 대표는 “이번 ‘소리꽃피다’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창적 무대를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장이다. 이 공연이 관객들에게는 감동의 시간이 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소리꽃피다’ 공연 티켓은 전석 1만원이며 공연 예약은 네이버 예매를 통해서 가능하고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063-223-5323) 문화공간이름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미륵사 중원 금당 복원연구 성과 공유

내일 ‘고도 한눈에 익산 세계유산센터’서 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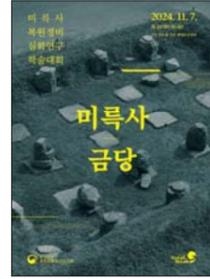
익산시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미륵사 중원 금당의 복원연구 성과’를 알리는 학술대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7일 금마면에 위치한 ‘고도 한눈에(愛) 익산 세계유산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익산 미륵사 중원 금당 복원연구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익산 미륵사 중원 금당 복원연구와 관련된 건축·미술·고고학 분야의 조사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중원 금당의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3부로 구성되며 7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1부는 중원 금당 조사연구와 관련 △익산지역 백제 사찰의 입지와 축조 공정 검토(김환



희, 국립원주문화유산연구원) △익산 미륵사의 시대별 기법 구조변화와 영향 요인 분석(한주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익산 미륵사지 중원 금당지 발굴조사 성과와 향후 과제(한광취,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원) 등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는 중원 금당 고증연구 성과에 대해 4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미륵사 금당 복원고증연구 현황(민홍식,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미륵사 금당 하부 구조의 건축사적 의의 검토 시론(강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백제 미륵사지 금당 불상 고증연구(김은아, 한국연구재단)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홍승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분야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008년 시작된 미륵사 복원정비연구가 심화연구로 진전되면서 체계적인 정비와 디지털 복원을 위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며 “학술대회를 계기로 세계유산 미륵사지의 가치를 높이고 알리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동학농민혁명의 숨결, 세계에 전파... 정읍서 특별전

정읍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된 기록 중심으로 전시... 내년 4월 13일까지 개최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을 중심으로 한 특별전을 5일 개막했다.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내년 4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속에 담긴 평등과 정의, 인권과 자주, 그리고 민주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총 40여 점의 소장품을 싣물로 선보이며, 풍부한 자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에서는 혁명의 기원을,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집중소를 세우다’에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조명한다. 3부 ‘자주와 항전의 기록’항세의 침략에 맞서다’에서는 외세에 맞선 저항을, 마지막으로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다’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뿌리로 자리잡은 과정을 다룬다.

이 외에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층에서는 ‘별목으로 써 내려간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서예 작품 58점이 전시된다. 이 서예전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서체로 표현하며 관람객들에게 글씨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전한다.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을 중심으로 한 특별전을 5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개막했다.

5일 오후 열린 개막식에서는 축하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져 많은 시민이 동참해 그 의미를 나눴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록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이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화수 시장은 “지난 9월 국제학술회에서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정읍시와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명의 도시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기록물 관련 선상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에서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기했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총 185건의 문헌이다.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등 기록 주제에 따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및 가치관을 알 수 있다.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 ‘옛날에는 짚신으로 신분 알 수 있었다?’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11월 ‘이달의 소장품-짚신’ 전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옛날에는 짚신으로 신분을 알 수 있었다?’라는 주제로 벽골제리랑사업소 내 박물관 로비에서 이달 말까지 ‘이달의 소장품-짚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짚신은 밭짓이나 부들 등 짚풀을 주재료로 삼아 엮어 만든 신발이다. 짚신의 종류는 재료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큰 범주에서 짚신으로 통용된다. 이번 전시에는 짚신 4점, 신갈 9점, 신갈망치 3점을 전시한다.

짚신은 고무신이 등장하기 전까지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신었던 신이다. 특히 짚이나 왕골, 부들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짚신은 신을 삼는 재료나 날 수에 따라서 신분을 알 수 있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대개 4날 짚신을 신었고, 상주나 수도승은 2날 짚신을 신었다. 양반들은 삼이나 왕골로 섬세하게

삼은 짚신을 주로 신었는데, 이를 ‘미투리’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종9품이나 양반, 아전(衙前)은 주로 6날 미투리를, 정3품 이상의 고관은 8날 미투리를 신었다.

짚신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도구인 신골은 장인이 신을 만든 다음 신을 사람의 발에 맞춰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 끼우는 도구이다. 짚신을 다 만든 뒤 마지막으로 형태를 잡아 주기 위해 신골을 끼워 넣는다. 이렇게 짚신에 신골을 넣은 다음 형태를 잡아 주기 위해 신골망치 이로 두드려 준다.

짚신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초반 고무신이 등장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짚신은 오랜 기간 발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다양도로 쓰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를 잇는 수단이 되기도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예기치 못한 여행’, 제18회

전북청소년영화제에 출품

전주학생교육문화관(관장 이현규)은 청소년 영화제작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예기치 못한 여행’을 제18회 전북청소년영화제에 출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영화제작스쿨은 방학 중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기획부터 촬영, 편집 과정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영화 제작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청소년영화제는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를 공모해 상영하는 영화제로, 오는 7~9일까지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개최된다.

한편 청소년 영화제작스쿨에서 출품한 작품은 오는 9월 10시 30분 상영될 예정이다.

이현규 관장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 전북 청소년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성취를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라면서 “많은 분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성 기자

# 도립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근현대미술 특별전: 선물’ 전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15일부터 분관 1-5전시실에서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선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이충섭, 박수근, 나혜석, 박승근, 이응노, 장욱진 등 근현대미술 대표 작가 46명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4월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에 6개의 공립미술관에 1,500점 이상의 미술작품을 기증했다. 기증 이후 현재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몇 차례의 특별전과 지역 광역시·도 미술관에서 관련



전시 개최됐고, 2022년 10월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협력으로 광역시·도미술관에서 순회전 형식의 특별전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이건희컬렉션을 수증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이충섭미술관의 소장품 86점을 비롯해 전북도립미술관을 포함한 8곳의 공립미술관에 기증된 50여 점이 함께 출품돼 회화, 조각, 드로잉 등 총 130여 점을 선보인다.

관람료는 무료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차별로 관람 가능하다. 회차별 관람 인원 250명으로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사전예약은 8일부터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회차별 100~150명씩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90-6886)로 문의하거나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www.j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축 전주매일 창간

#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매도</p> <p>① 농지 매도 대금</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p>② 직불금 매월 50만원/ha <small>*1ha 200만원(4ha)기준</small></p> </div> </div>	<p>→</p>	<p>가입 시 연령에 따라</p> <p><b>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매도 조건부 있다</p> <p>① 농지연금 매월 최대 300만원 ② 농지 임대료 ③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상환액 제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p>④ 직불금 매월 40만원/ha <small>*1ha 160만원(4ha)기준</small></p> </div> </div>	<p>→</p>	<p>10년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79세 농업인</p>

**가입요건**  
10년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79세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 중인 전농지 및 경지 정리된 비전농지 농지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